

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(시)

제목	보호하기
	<p>나는 시로 집을 짓는 사람 글 써서 뭐 먹고 사냐는 말 흘려듣기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시집을 펼치니 글자가 살아 움직인다</p> <p>모든 것은 글로 시작하고 넌 그걸 모른다 나중에 내 글이나 훔치지 말라는 농담에 너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기지 않아서 더 웃긴다고 했다</p> <p>아이디어는 공기 같아서 누구나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호흡이 되지는 못한다 저작권 보호는 내 숨을 지키는 일</p> <p>이 집은 내가 지었다는 팻말에 누군가는 그걸 떼고 들어오려 하고 누군가는 팻말째 훔쳐 가기도 하는 기울어지는 사람들 균형감을 자주 잊는 사람들</p> <p>아침부터 밤까지 침묵을 끌어다 지은 문장들을 어떤 사람은 집 앞까지 와서 조용히 표절한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눈빛으로 나는 말하지 않는 대신 문을 잠근다 저작권이 보호된 이 집은 작지만 무너지지 않는다</p>